

업그레이드 me

퀼트 즐기기

‘행복도 한 뼘, 슬픔도 한 뼘’

퀼트는 인생과 닮았다. 행복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일 등 소소한 일상들이 조화를 이뤄 삶을 채우듯, 퀼트도 알록달록한 작은 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퀼트를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퀼트’에서도 저마다 사연을 품고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조각조각 합쳐져 ‘아메리칸 퀼트’라는 작품으로 탄생한다. 영화 속 할머니들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천에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초스피드시대에 손바느질이라는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이들이 꼽은 퀼트의 매력은 무엇일까.

행복 한뼘 슬픔 한뼘 조각조각 인생을 엮다

◇성취감 한번-빠지면 못 해어나=13일 오후 광주 시 남구 봉선동 ‘아메리칸 퀼트’숍. 한 뼘 한 뼘 천 조각 깎고 꿰매는 바느질 작업이 고될 만 한데도 수강생들 사이에는 수다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부 오은주(37)씨는 “어깨도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완성된다”며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퀼트 작품만큼은 자신의 취향대로 만들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

퀼트의 나쁜 점이 있다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 주부 선향연(44)씨는 14년째 퀼트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퀼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선씨는 “퇴근이 늦었던 남편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 때우기용 취미가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한 부분이 됐다”며 “머리가 복잡할 때는 퀼트를 하면서 고민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스트레스도 푼다”며 중년의 주부가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로 퀼트를 꼽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배워=퀼트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생 강동호(여·20)씨는 퀼트를 배우기 시작한지 2주 밖에 안됐지만 그 사이 파우치(작은 손가방)를 2개나 완성했다.

강씨는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나만의 것’을 만

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재밌다”며 활짝 웃었다.

퀼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든다. 전용 바늘과 실, 시침핀, 골무, 솜, 원단, 초크펜, 재단용 가위 등이 필요하다. 10가지 기본 재료만 장만하는데 보통 4만~5만원이 든다. 퀼트용 실 가격은 2천~7천원 선이며 퀼트용 천은 1m(110×90cm)당 2만원 수준으로 퀼트용 재료의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초보자의 경우 퀼트숍에서 조금 과장(작품 10개·15만원)을 수강한 다음에는 원하는 제품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 재료는 퀼트숍, 양도시장이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메리칸 퀼트’ 송지오 원장은 “퀼트는 장식용품은 물론 옷이며 이불까지 못 만드는 게 없을 만큼 활용도가 높다”며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퀼트용 천 대신 현웃이나 주위에 굴러다니는 자투리 천을 활용하면 알뜰하게 퀼트를 즐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에서는 백화점 문화센터를 비롯해 아메리칸 퀼트(062-653-9273), 이지희퀼트하우스(062-384-8331), 광주퀼트(062-362-0160), 즐거운퀼트하우스(062-573-2712) 등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글·사진=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퀼트(Quilt)=라틴어 ‘Culita(속을 채운 봉투)’에서 유래했다. 천을 조각한 후 솜과 안감을 대고 누비는 바느질법을 말한다. 일종의 서양식 누비로 지역과 무늬의 특성에 따라 잉글리쉬 퀼팅, 아메리칸 퀼팅, 이탈리아 퀼팅 등으로 나뉜다.



13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아메리칸 퀼트’숍에 모인 수강생들이 퀼트 작품을 만들고 있다.



손바느질 적합한 40~60수 완전 목면 사용 메인 색 정하고 재단...시침질 잘해야 깔끔

■ 퀼트 쉽게 배우기

‘아메리칸 퀼트’ 송지오 원장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퀼트법을 제시했다.

◇천 고르기=메인 색상을 정하고 비슷한 컬러의 프린트 천을 준비한다. 단색의 민무늬 천은 배색이나 바탕에 알맞고 체크 무늬천은 배색이 어려울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사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려면 작은 꽃무늬, 넓은 면을 디자인하거나 포인트가 필요할 땐 큼직한 꽃무늬가 제격이다. 기하학적인 프린트는 디자인에 맞춰 문양과 색상을 선택한다.

◇재단하기=손바느질에 적합한 40~60수 정도의 평직으로 짠 100% 목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색깔별로 나누어 잠시 물에 담가 두어야 천의 수축과 물 빠짐을 방지할 수 있다. 밀그림은 2B 연필로 천 뒷면에 그린다. 짙은 색 천은 흰색이나 노란색 등의 초크 연필로 그려야 라인이 잘 보인다. 도면은 그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0.5~0.7cm의 시침을 두고 자른다.

◇시침질하기=겉감과 퀼트 솜·안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단계다. 시침질을 잘해야 천이 울지 않고 깔끔하다. 퀼트를 만들고 나서 뽑아내는 실 정도로 여겨 대충했다간 나중에 실랑하기 십상이므로 꼼꼼히 하는 것이 현

명하다.

◇시침 정리하기=시침이 일정해야 퀼팅 선이 가지런해진다. 시침은 보통 0.7cm씩 남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완성된 패턴의 시침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정리하고 메인인 되는 천 쪽으로 나머지 천의 시침을 넘겨 패턴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다. 정리된 시침은 다림질로 눌러주고 시침끼리 밀착선이 되도록 잘라준다.

◇패턴 잇기=사각형은 9장의 사각형 조각을 이어 만드는 ‘나인 패치워크’가 기본이다.

삼각형은 큰 삼각형을 메인으로 해서 시침 처리를 한다. 빗변끼리 이어 붙일 때는 천이 서로 다른 바이어스 방향이 되도록 해야 늘어나지 않는다. 육각형은 종이로 만든 육각형 모양의 도안을 이용해 편리하다. 각각의 천에 시침을 접어 바느질하고 두 장의 천 조각을 같이 마

주보도록 해 감칠질로 연결한다. 다림질한 후 시침실과 종이를 빼내기만 하면 된다.

◇보관 및 세탁=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접은 퀼트를 가만히 넣고 천천히 흔들어 세탁한다. 물이나 건이 섞였을 경우엔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한다. 또 세탁한 퀼트는 비틀어 짜지 말고 타월이나 종이로 눌러 물기를 뺀다. 인형은 울 세제를 이용해 손으로 주무른 다음 물기만 살짝 제거해 말린다.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생일!

돈보따리 비데

부엌의 선풍기 친구다!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물과 기름이 다른 비데 선풍기들이 전하는
불편을 잊는 것도 선행!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풍하세요!

NO-KA150
370,000원 →
195,000원

노비타비데 & 노비타
비데프라자 | ☎062-515-1144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유익한 그림(지능,건강 등)
원서 상권현시상 오름(노로노로)해서 써서 그려서 그림도 감상하세요

분취첩서화

黃體葛書齋
작가 안용선

NAVER

<원주상생원서화>
충청남도 YACA 원주 3층 원기누설 기온보림 광주지부
<충청문의원 원주누설 기온보림 원주>
☎ 043-232-9450 / H # 018-236-4725